

朝鮮後期 士大夫 服飾 試論

— 洪禹協 墓 出土遺衣를 中心으로 —

忠清專門大學 衣裳學科
助教授 金 明 淑

目 次	
I. 序 論	IV. 遺衣의 特徵 및 論議
II. 出土狀況과 調査經緯	V. 結 論
III. 出土衣服 및 織物	

I. 序 論

本發表文은 朝鮮 孝宗 6年(1655)에 出生, 21歲에 武科에 及弟하여 豐川都護府使 海州鎭官兵馬水軍 節制使同僉節制使職을 歷任, 肅宗 17年(1691) 36歲에 卒한 通訓大夫 洪禹協의 墓에서 出土된 衣服類에 關한 研究報告이다. 織物類는 大殮衾, 各種 紋緞等 約 80點인데, 그 中 約 40點의 衣服에는 洪公의 것과 함께 女子의 것으로 推測되는 '赤古里' 3點과 兒童의 것으로 推定되는 袍 1點이 包含되어 있어 洪公의 夫人 李氏와 子 啓業의 衣服을 棺內 副葬品으로 넣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 資料는 韓國의 1600年代 末의 30代 男女服飾, 成人과 兒童의 服飾을 比較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라 하겠다. 또한 出土服飾 및 織物類에는 華麗하고 多樣한 紋樣이 22種 發見되었고, 金絲를 넣어 織造한 高級 紋緞, 縹織 등이 있어 朝鮮後期의 織物 및 紋樣研究에 重要한 資料가 될 것이다. 特히 洪公의 壽衣 中에는 領의 內側과 袖口部分이 汚染되어 있거나 補修된 部分이 發見되어 平常服으로 着用되던 衣服을 그대로 壽衣로 使用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墓 出土壽衣 및 棺內 補空品을 通해 朝鮮後期 士大夫의 着用服에 關해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本人은 이 機會에 韓國 이외 地域에서 出土된 衣服 및 織物에 對해 알고자 하며,

特히 中國·日本과의 交流相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게 되길 期待한다.

II. 出土狀況과 調査經緯

1985年 新都市計劃으로 因하여 京畿道 始興郡 所在 洪禹協의 墓를 移葬하는 過程에서 衣服 및 織物類가 出土되었다. 奉墳은 大形 單墓인데 石灰層이 두껍게 棺을 덮고 있었다. 棺은 長方形의 外廓과 內棺으로 되었는데 黑色 옷칠을 하였으며 墓誌는 發見하지 못하였다. 屍身은 미이라化되었고, 상투에는 銀製 簪을 끼웠다고 한다. 屍身에는 여러 겹의 衣服이 입혀져 있었고 棺內에도 여러가지 衣服과 織物 등이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出土된 服飾等은 洗劑를 使用치 않고 冷水로 洗濯한 後, 通風되는 陰地에서 乾燥시켜서 弱한 熱로 다림질하였고, 蟲菌에 依한 被害를 防止하기 위해 1년에 1回 燻蒸處理를 實施해 오고 있다.

III. 出土衣服 및 織物

1. 種類와 數量

- 1) 袍類 : 27點(成人 男子用 ; 26點, 兒童用 ; 1點)(註 1)
- 2) '赤古里' : 5點(男子用 ; 2點, 女子用 ; 3點)

- 3) '把持': 4點(男子用)
- 4) 腰帶: 1點(男子用)
- 5) 各種 喪禮用品(銘旌, 玄纁, 幘目 등); 10點
- 6) 紋緞, 紋紗, 織物片 등; 約 40點(合計 約 80點)

2. 紋樣의 種類

- 1) 動物紋: 5種(龍, 鶴, 栗鼠, 蝶, 蜂)
- 2) 植物紋: 8種(牡丹, 梅花, 石榴, 水菊, 蓮花, 葡萄, 菊花, 其他)
- 3) 其他紋: 9種(雲, 七寶, 卍字):
合計: 22種

3. 織造法의 種類

6種의 織造法이 發見되었다.

- ① 平織, ② 斜紋織, ③ 朱子織, ④ 紗織, ⑤ 紹織, ⑥ 縐織(crépe de Chine) (註 2)

4. 纖維成分

使用된 纖維는 모두 絹이었다. 檢査는 '韓國衣類試驗檢査所'에 依賴하였으며, 方法은 顯微鏡法·燃燒法·溶解試驗法을 使用하였다.

5. 織物의 幅

紬는 36~37cm幅과 62~63cm幅의 2種이었고, 紗나 緞은 65~66cm幅이 大部分이었다.

6. 縫針法

홈질(Running stitch)이 가장 많이 使用되었고 누비질(Quilting)도 많이 愛好 使用되었다. 가끔

박음질(Back stitch)이 使用되었고 上針等(Top stitch) 其他 針法도 發見되었다.

IV. 出土遺衣의 特徵 및 論議

(1) 出土衣服 중 가장 많은 것이 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朝鮮後期의 士大夫들에게 袍가 상당히 流行되었으며, 그 種類 및 形態가 多樣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當時의 風俗畫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出土된 袍의 種類로는 '帖裏', '袴襪', '周衣', '中赤幕', '髦衣', '團領', '直領', '狹袖' 등이다.

(2) 男子의 '赤古里'와 女子의 것을 比較해보면 男子의 것이 길고 옆이 조금 트였으며 衿의 形態가 달랐다. 그리고 女子 '赤古里'에만 全體적으로 혹은 部分的으로 紋樣이 있는 織物이 使用되었다.

(3) 成人男子의 袍와 兒童의 袍를 比較해 볼 때 크기가 다를 뿐 基本的인 形態와 縫製法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兒童의 袍에는 바탕색과 다른 色의 高름을 달았다는 점이 特色이었다.

(4) 袍의 소매가 좁은 것(25cm 정도)과 넓은 것(50cm 정도), 2種類가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特徵은 同時代 他 人物 墓의 出土服飾에서도 發見되는 것으로 1600~1700年代 士大夫服飾의 特徵으로 생각된다.

(5) 同時代 他 出土服飾과 比較해 볼 때 '帖裏'나 '袴襪'의 形態가 서로 달라 朝鮮後期 士大夫들의 帖裏 등이 一定하게 고정된 形式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多樣하게 製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保存狀態로 볼 때, 紬나 紗보다는 緞이 비교적 保存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1) 中國 明代 神宗顯皇帝(A.D 1573~1620年 在位)의 墓인 定陵에서도 童衣가 3件 出土되었는데, 報告書에는 이를 孝靖后 第四女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亡者의 배우자 옷을 副葬하는 경우는 우리 나라의 다른 例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자녀의 옷이 出土 보고된 경우는 그 例가 적다. 한편, 이를 服玩品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으나, 洪禹協의 墓에서 出土된 童衣는 입었던 흔적이 있어 服玩品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2) 縐織(crépe weave)의 種類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本 出土 크레이프직은 경사에 꼬임이 없고, 위사에는 두올씩 교대로 S꼬임, Z꼬임이 강하게 주어져 있는 크레이프드신(crépe de Chine)이다. 필자는 中國 漢代 馬王堆 墓 出土服飾의 직물이 위와 같은 직조법과 거의 같게 짜여진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明代 定陵 出土 직물에서도 크레이프드신이 보고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앞으로 한·중의 직물, 직기, 직조기술 등의 상호교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7) 洪禹協은 武官이라 戎服인 帖裏를 着用하였으나 同時代 文官이었던 忠北 中原郡 李公의 出土 遺衣 中에는 深衣가 包含되어 있어 生存時의 文·武官 與否는 服飾과 關係가 있다고 본다.

(8) 縐織物(crépe)이 朝鮮後期 士大夫 服飾에 使用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中國이나 日本과의 交流關係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研究課題이다.

V. 結 論

以上の 研究는 朝鮮後期 1600年代末에 生存하였던 士大夫 洪禹協의 墓에서 出土된 服飾 및 織物을 考察한 것이다. 現在 韓國에서는 死後에 着用하는 壽衣는 平常服과는 다른 材料(特히 明紬나 麻)와 形態로 製作하는 것이 通例이나 朝鮮時代에는 基本的으로 平常服 自體를 壽衣로 利用하거나, 그와 同一한 形態로 製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出土된 多様な 袍의 種類나 織物, 紋樣 등에서 當時 士大夫 服飾의 流行의 一面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개성복식은 검토하면서 진보적인 개성인의 기질과 상업발달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고려문화에 바탕을 둔 개성인의 뛰어난 미적 감각이 결합·반영된 소산이라 하겠다.

앞으로 개성복식의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고려복식과 몽고복식의 관계를 역으로나마 추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서울 평양등 각 지방의 독특한 색채를 갖고 있는 지역 복식에 대한 비교 연구등 일상 생활속에서 전통복식을 착용하였던 세대가 다하기전 하루바삐 조사 정리하는 작업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만길(198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개풍군지편찬위원회(1970), 「개성군지」.
- 「開城誌」.
- 개성상인회(1970), 「개성」, 예술춘추사.
- 고유섭(1977), 「송도의 고적」, 열화당.
- 김영숙(1988), 「도해 한국복식사사전」, 민문고.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편)(1986), 「한국민속 종합 보고서의 의생활 편」.
- 「샘이 깊은 물」, 뿌리깊은나무社, 1985. 5, 1985. 2.
- 「松京誌」.
-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 李翼, 「星湖僮說」.
- 「朝鮮王朝實錄」.
- 仲摩照久(編)(昭和 5年), 「朝鮮地理風俗」, 東京: 新光社.
- 최상수(1988), 「한국 씨름과 그네의 연구」, 정동출판사.
- 지동식(편)(1990), 「服飾名品圖錄」, 고려대학교 박물관.
- 「한국 무역사」(1972), 한국무역협회.
- 허동화(1987), 「Crafts of the Inner Court」, 한국자수박물관.